

# 민족자주 선언한 남과 북



윤위중의  
잠시 심포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상상 이상의 것들이 현실이 됐다. 수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단어는 '자주(自主)'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인한 '판문점 선언' 앞부분에는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한반도의 비핵화, 남과 북의 경제교류, 핵실험장 공개적 폐쇄 등 연일 예상치 못한 과격 조치가 쏟아져 모든 게 충격적이었지만 두 정상이 언급한 '자주'란 단어만큼은 반드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 치하 때 민족의 자주권을 잃어버렸다.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그 결과물로 얻은 것이다.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 땅을 둘로 갈라랐고, 6·25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지만 둘로 갈라진 땅은 합쳐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의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했다. 세계 7위의 무역국이 위상을 떨치고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철강과 가정용 전자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자유무역협정(FTA)에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위협적이 됐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 문제만큼은 우리에게 자주성이 없다. 북한과의 휴전협정도 미국을 포함한 유엔과 북한·중국의 사령관들이 체결한 것이다. 안보는 외교나 국방보다 상위 개념이다. 국가의 안위를 우리 손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인 셈이다.

북한이 핵을 집요하리만치 물고 늘어지는 이유도 자주권 때문일 것이다. 남과 북의 국력 차는 이미 수십배 이상 커졌다. 전쟁을 벌여도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 없다. 정권을 유지하려면 미국과 남한이 상상할 수 없는 '뭔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게 핵무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도보다리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족의 운명을 민족 스스로

결정하자. 이제 우리는 그만쯤 컸다'는 자주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그것이 판문점 선언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번 정상회담 대응자세가 '위장 평화 쇼'라며 폄하하고 있다. 이런 의심의 근거는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를 여덟 번이나 속였기 때문이다.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은 북한의 이번 같은 평화 제스처가 내심 못마땅할 것이다. 부모형제를 죽이고, 고향에서 쫓아낸 장본인이 이제와서 평화를 얘기하는 게 가당치도 않을 것이다. 그런 '경험적 측면'에서 기성세대들의 의심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자세를 보면 미국의 '코피작전'을 무마하기 위한 속임수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판단 역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만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진짜 실행될지, 또 다시 거짓말이 될지는 전적으로 남과 북의 자주적 노력에 달려 있다.

아울러, 보수진영이 우려하는 것처럼 남과 북의 협력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아홉번째 거짓말'로 변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플랜B'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산업부장 yjh@metroseoul.co.kr

# 이주열 'ASEAN·BIS회의' 등 참석차 출국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사진)가 오는 4일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제21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7~8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BIS 정례총재회의' 등 참석을 위해 3일 필리핀으로 출국한다고 2일 밝혔다. 귀국 예정일은 오는 10일이다.

이 총재는 오는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최근 역대 금융·경제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협정문정기점검 및 실효성 제고방안, AMRO(역내 거시경제 감시기구) 발전전략 등 역대 금융협력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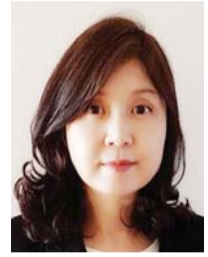
/이봉준 기자 bj35sea@

# 한은 금통위원에 임지원 JP모건 본부장

은행연합회는 한국은행법 제13조에 따라 오는 12일자로 함준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임지원 JP모건 서울지점 수석본부장(사진)을 추천한다고 2일 밝혔다.

임 후보는 JP모건에서 20여년간 한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은행연합회는 임 후보에 대해 "국내 은행계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국내의 금융시장 및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 사



유를 설명했다. 임 후보가 금통위원으로 임명되면 이 성남 전 위원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위원이 된다. 임 후보는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9년부터 JP모건에서 경력을 쌓아 왔으며, 현재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회의 의원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어벤져스3' 오역은 나몰라라



기지수첩  
김민서  
(온라인뉴스부 엔터팀)

영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이하 '어벤져스3')의 오역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단순한 해석 차이라면 모를까, 작품의 이해도와 시리즈의 개연성까지 떨어뜨린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달 25일 개봉한 '어벤져스3'은 역대 최강의 악당 '타노스'에 맞서 전 세계의 운명을 지키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어벤져스3'의 국내 흥행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사전 예매는 120만 장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개봉 2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일 영화진흥

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어벤져스3'은 지난 1일 기준, 총 누적 관객수 597만6232명을 기록했다. 이렇듯 개봉 2주 차에도 막강한 흥행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천만 관객도 머지 않았다.

그러나 관객이 늘어날 수록 '오역 논란'도 가속화되고 있다. 시리즈를 관통하는 대사마저 오역으로 뒤범벅돼, 관객의 이해도를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엔드 게임(End game)'의 의미다.

이 대사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타노스에게 넘겨준 뒤, 아이언맨에게 질타를 당할 때 등장한다. 그의 "We're in the end game now"라는 대사는 "이제 가망이 없어"로 해석됐지만 영화 맥락과 이어지지 않는다.

앞선 서사를 이해한다면 'end game'을 '최종 단계'로 보고, 타노스를 이기기

위한 마지막 한 수로 해석해야 옳다. 오역으로 인해 영화의 결말마저 뒤틀린 격이다.

살아있는 캐릭터를 사라지게 만든다거나, 우스꽝스러운 직역으로 영화의 몰입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렇다보니 관객들은 직접 해석을 찾아봐야하는 지경까지 왔다. 분노한 일부 관객들은 번역가 박지훈의 지속적인 오역 논란을 꼬집으며 청와대 청원까지 넣고 있다.

'어벤져스4'의 부제 'end game'이 유력한 가운데, 국내 제목은 '어벤져스-가망없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 논란이 '어벤져스3'의 흥행세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오랫동안 작품을 고대해온 관객의 목소리를 들려 들진 말아야 할 것이다.

/min0812@metroseoul.co.kr

# 평창올림픽 계기, 겨울 레포츠 홍보 시동

문체부·관광공, 홍보영상 제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높아진 한국관광 인지도를 활용해 겨울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 이미지를 강화하고 동계 시즌 해외 관광객 유치에 목적으로 겨울관광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통이 일상인 온라인 유저 콘셉트를 활용해 전 세계인이 즐겨 사용하는 SNS 채널의 특징을 살려 더욱 트렌디하고 생동감

있게 제작됐다. 영상의 주요 소재로는 겨울 대표 스포츠인 스키와 눈썰매를 비롯, 눈 내리는 한옥에서 다과를 즐기는 장면, 전통시장에서 음식 즐기, 겨울축제, 겨울밤 캠핑 장면 등을 활용해 한국은 추운 눈의 나라에서 따스한 활동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지임을 강조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91@



현대약품 봉사단 두레회, 죽전원 찾아 봉사활동

현대약품의 사회봉사단 '두레회'는 지난달 29일 천안시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죽전원'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두레회 회원 20여 명은 이날 시설 내의 농장 잡초 제거, 주변 시설 청소 및 환경 정화 활동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으며, 이들을 위한 각종 후원 물품도 전달했다.

/현대약품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국장급 전보 △ 투자정책관 이호준

◆코스닥협회 ◇ 부장대우 승진 △ 연구정책본부 법제팀장 진성훈 △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팀장 정익송 △ 경영지원본부 홍보·IR팀장 노수찬 ◇ 차장대우 승진 △ 회원서비스본부 회원업무팀장 신영재 △ 회원서비스본부 회원지원팀 경미선 △ 연구정책본부 경제팀 김변주

◆한국증권금융 ◇ 상무 △ 흥인기 신탁본부장 △ 이병렬 영업부문장

◆NH투자증권 ◇ 신규선임 △ 투자금융부장 이주현

◆스포츠클럽 △ 편집국 체육부장 권기범

## 부음

▲ 조충현씨 별세, 조민성(티에스디글로벌 상무이사)·미경(전 현대엘파트너스 이사)·영희(웨딩인 본부장) 부친상, 이제훈(한겨레신문 통일외교팀 선임기자) 장인상, 김현빈(텍사스인스트루먼트 코리아 부장) 시부상 = 1일 오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5월 4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00

▲ 이원출씨 별세, 이동춘(한국성장금융 대표)·동길(유니인포 대표)·동환(심팩 부사장)씨 부친상, 조주현(코스모넷 대표)씨 장인상 = 1일, 서울성모병원(강남)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4일 오전 5시 40분. 02-2258-5940

▲ 장일향씨 별세, 한양수(자영업)·태수(전 ㈜포월드 이사)·천수(기아자동차 재경본부 부사장)·중우(㈜투바신 대표이사)씨 모친상 = 2일 오전 4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장지 포천 천보묘원. 02-3010-2230

# 장애인 등 실종 대비 '지문 사전등록' 하세요

서울우유·경찰청, 안심등록 캠페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이 경찰청과 함께 '지문 사전 등록제' 장려를 위한 '안심등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1일부터 생산되는 제품 2종 표지에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문구 및 이미지를 삽입했다. 적용되는 제품으로는 6월 30일까지 생산되는 '흰우유 200ml'와 9월 30일까지 생산되는 '나100% 1L'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정식품 '사랑나눔 캠페인' 통해 심장병 환자 수술비 지원

정식품은 지난달 26일 한국심장재단에 심장병 환자를 위한 '사랑나눔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정식품은 사회공헌 활동인 '사랑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부터 19년째 꾸준히 심장병 환자의 수술비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한국심장재단에 전달된 후원금은 2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총 4억7000만원의 후원금을 심장병 환자들의 수술비로 지원했다.

/정식품

|  |               |
|--|---------------|
| <b>metr 메트로미디어</b>                                     |               |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br>TEL:021721-9800, FAX:021730-1551 |               |
| 발행·편집인   | 이규규           |
| 편집국장   | 이규규           |
| 인쇄인  | (주)중앙일보 김교준   |
| 광고문의   | 021721-9851.3 |
| 2002년 5월 31일 정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100206                      |               |
| 제3949호 / 0043호   |               |